

대동, 스마트팜 넘어 시온실로 미래농업 개척

농식품부 AX플랫폼 위협 선정
전남 컨소시엄 대표기업 맡아
LG CNS·대동에그테크 합류
2546억 들여 무안 첨단온실 조성
국내 첫 4세대 자율농업 실증



대동그룹 계열사인 제주대동이 제주에 구축한 스마트팜 전경.

대동그룹이 서울, 제주, 태안 등에 있는 스마트팜에서 직접 농사를 짓더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온실에 도전하며 미래 농업시장 추가 개척에 나선다. 계열사인 대동에그테크, 대동에이아이랩 등도 함께 나선다.

12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국가 농업AX플랫폼'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대동을 대표기업으로 하고 LG CNS, 대동에그테크, 대영지에스, 아트팜농법법인, 전라남도 무안군 등이 두루 참여하는 '전라남도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올해 안에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내년부터는 초기 사업비 총 2546억원을 투자해 전남 무안군 일대에 21.6ha(약 6만5000평) 규모의 첨단 AI 온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대동은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사무소 사옥 5층에 자연광과 인공 LED 광원을 결합한 복합광원 방

식의 옥상형 스마트팜을 구축했다. 여기서는 고기능성 작물인 '이고들빼기'를 재배했다.

이고들빼기는 현재 제주대동 스마트팜에서 대량 재배하고 있다.

대동그룹의 미래농업 관광단지인 제주대동에선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활용하는 팜테이블(Farm to Table)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제주 당 카페에서는 이고들빼기를 활용한 파스타와 음료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재배 작물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 푸드테크 사업 모델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대동그룹은 제주 스마트팜을 단순 재배 시설이 아닌 미래농업 관광과 F&B, 기능성 작물 연구가 결합된 미래농업 복

합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계열사인 대동에그테크는 지난해 말 스마트팜 전문 기업 컬티랩스의 영업권을 인수하며 충남 태안 지역 약 2만4000㎡(약 7300평) 규모의 스마트팜 운영 인프라도 확보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재배 솔루션을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직접 재배와 유통 경험까지 축적해 스마트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제주, 태안으로 이어진 스마트팜은 무안에서 AI온실로 발전하고 있다.

대동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선정된 사업의 핵심은 온실과 노지를 아우르는 국내 최초의 '4세대 무인 자율형 스마트농업' 모델 실증이다.

국내 온실 레벨 단계는 '비닐하우스·시설농업'(1세대)→'온도·습도·CO₂ 등 재배 환경 자동 제어'(2세대)→'AI가 최적의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지능형 스마트농업'(3세대)→'로봇·AI 기반 무인 자율 운영을 통한 재배·수확·유통 전 과정 자동화'(4세대)로 각각 나뉜다.

대동은 AI트랙터·농업용 로봇·정밀농업·스마트팜 운영 경험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이다.

이에 따라 무안 AI온실에선 무인화 와 노지 농업의 AI 자율화를 동시에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AI트랙터와 다목적 농업로봇, 노지 정밀농업·온실 스마트팜 솔루션 등을 연계해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농업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원유현 대동 부회장은 "이번 선정은 대동이 농기계 제조 기업을 넘어 AI 기반 미래농업을 구현하는 농업 피지컬 AI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 농업AX플랫폼을 통해 AI 농업 플랫폼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독형 AI 농업 서비스 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코웨이

강력냉방·위생강화
벽걸이 에어컨 선포

코웨이가 강력한 냉방 성능에 위생을 더욱 강화한 '벽걸이 에어컨'(사진)을 출시했다. 12일 코웨이에 따르면 새로 선보인 벽걸이 에어컨은 거실, 침실, 서재 등 독립된 공간마다 냉방을 희망하는 동시에 관리 편의성도 중시하는 고객층을 겨냥했다.

코웨이 벽걸이 에어컨은 상하는 물론 좌우까지 4방향으로 바람을 자동 조정해 빈틈없이 냉방을 할 수 있다. 파워냉방 모드로 더위를 빠르게 식혀주며 제습, 송풍, 취침 모드와 예약 설정 기능을 탑재해 상황에 맞춰 공간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공간 면적에 따라 6평형 2종(IoCare형·기본형), 8평형, 10평형의 4가지 라인업을 갖췄다.

/김승호 기자

LS전선, 폐전선 재활용 구리소재 사업 본격화

한국미래소재 군산공장 준공
재생동·큐플레이크 양산 돌입
탄소배출 최대 80% 저감 기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대 등으로 구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LS전선이 친환경 구리소재 사업을 본격화한다. 폐전선 재활용을 기반으로 재생동을 생산하고 북미 공급망과 연계해 자원순환형 소재 사업을 키울 것이라는 전략이다.

LS전선은 자회사 한국미래소재가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재생동과 큐플레이크(Cuflake) 등 친환경 첨단소재 양산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군산공장 준공으로 LS전선은 국내 전선업계 최초로 친환경 소재부터 전선 생산까지 이어지는 자원순환형 공



한국미래소재 군산공장 조감도.

/LS전선

급망 구축에 나선다. LS그린링크와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LS에코첨단소재 등 주요 계열사와 연계해 북미 시장 밸류체인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미래소재는 LS전선이 60여년간 축적한 구리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소재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설

립됐다. 군산공장에서는 재생동을 비롯해 동박용 신소재 큐플레이크, 고순도 무산소동(OFC), 구리 합금 등 친환경 첨단소재를 생산한다.

재생동은 폐전선 등에서 회수한 구리를 재활용해 만드는 소재다. 채굴 방식과 비교해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친환경 소재 기준과 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선과 배터리 시장에서 친환경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향후 수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큐플레이크는 LS전선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동박용 신소재다. 기존 구리선 대신 구리 조각을 적용해 제조 공정을 단순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제조 비용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원자재 수급 안정성과 친환경성도 높일 수 있다.

한국미래소재는 미국 버지니아주 LS그린링크 인근에 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LS전선 계열 공급망과 연계해 북미 현지 대응력을 높이고 자원순환형 사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관희 기자 wkh@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위기알림톡
재기 안전망 자리매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 관리하고 재기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위기 알림톡' 서비스가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31일 서비스 도입 후 한 달 간 총 7만5000건의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민간은행 5곳이 발송한 2만6000건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위기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관별 지원 정책이 분산된 탓에 접근에 애를 먹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점에 착안해 고위험 차주, 연체 차주, 폐업 차주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위기알림톡을 발송 중이다.

/김승호 기자

한샘, 건설경기 침체에도 12분기 연속 흑자

1분기 매출 3994억·영업익 101억

한샘이 주택건설경기 침체속에서도 12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한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 3994억원, 영업이익 101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B2C부문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고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과 비교해 56% 증가했다.

B2C사업 매출이 늘어난 것은 고급화된 주거 트렌드에 발맞춰 디자인과 품질을 강

화한 전략상품군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결과라는 게 회사측 분석이다. 특히 리하우스 부문에서 부엌, 바스, 수납 등 핵심 카테고리에서 전문성과 품질 기준을 극대화한 전략상품군을 대거 선보이며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어냈다.

홈패시닝 부문에서도 드레스룸, 책상, 식탁 등의 카테고리에서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고객의 요구를 세밀하게 반영한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 영향력을 넓혔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아이허브, 글로벌 물류동행 10년

미국 본사서 10주년 기념식 개최

CJ대한통운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판매 플랫폼인 미국 아이허브(iHerb)와 10년째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아이허브 본사에서 '글로벌 유통·물류 동반성장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년 전 한국 시장에서의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과 중동 시장으로 확장하며 이어온 협력

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조나단 송 글로벌사업 부문 대표는 이만 자비히(Emun Zabih) 아이허브 CEO와 감사패를 교환하고 글로벌 이커머스 공급망 고도화를 위한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사의 협력 성과는 물량 지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CJ대한통운이 아이허브를 대상으로 처리한 연간 물량은 초기 110만 상자 수준에서 2025년 1040만 상자로 확대되며 10배 가량 성장했다.

/김승호 기자

여성기업 10곳 중 6곳
스태이블코인 도입 기대

여성기업 10곳 중 6곳은 스타이블코인 도입될 경우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거래 편의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스타이블코인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부설 여성경제연구소가 12일 내놓은 '스타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여성기업 인식과 활용 가능성' 보고서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성기업의 63.2%는 스타이블코인 도입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